



baekha.y



baekha.y 작업노트

1. 곰취

올해 봄 인제에 갔다가 곰취가 정말 맛있다는 것을 어른이 되고 알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가 생전에 산을 다니며 따왔던 넓은 잎이 곰취였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건강했던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서 많은 식물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고 싶다.

2. 두릅

안동에 있을 때면, 매년 두릅을 따러 산에 가곤 했다. 비포장 임도를 트럭을 타고 산에 가서 부모님은 두릅을 따고, 고사리를 꺾었고, 나는 매미를 잡고, 개미귀신을 구경했던 기억이 난다. 온통 놀 것들이었던 것 같다. 내년 봄에는 그곳에 가보자고 이야기 해야겠다.



hyunbinseong님 외 25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2. 두릅

안동에 있을 때면, 매년 두릅을 따러 산에 가곤 했다. 비포장 임도를 트럭을 타고 산에 가서 부모님은 두릅을 따고, 고사리를 꺾었고, 나는 매미를 잡고, 개미귀신을 구경했던 기억이 난다. 온통 놀 것들이었던 것 같다. 내년 봄에는 그곳에 가보자고 이야기 해야겠다.

3. 쑥

목욕탕에 가면 꼭 쑥 한증막이 있었다. 안내 문구 중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 자란 게 쑥이었다는 내용. 지금 춘천집 냉장고 안에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딴 쑥을 고향 동네 방앗간에 맡겨 만든 쑥떡이 가지런히 자리해있다.

4. 상추

상추에는 종류가 무척 많다.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생활을 하려는 요즘 가장 흔



hyunbinseong님 외 25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3. 썩

목욕탕에 가면 꼭 썩 한증막이 있었다. 안내 문구 중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 자란 게 썩이었다는 내용. 지금 춘천집 냉장고 안에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딴 썩을 고향 동네 방앗간에 맡겨 만든 썩떡이 가지런히 자리해있다.

4. 상추

상추에는 종류가 무척 많다.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생활을 하려는 요즘 가장 흔하지만 없으면 아쉬운 상추

5. 앵두

외할머니댁은 옹천 천변 아래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고 또, 밭이 딸려 있는 이상적인 구조였다. 그 밭에는 무척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앵두나무였다. 다 칩칩에 나 배드뒤르 자뜨 자그 노다



hyunbinseong님 외 25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4. 상추

상추에는 종류가 무척 많다.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생활을 하려는 요즘 가장 흔하지만 없으면 아쉬운 상추

5. 앵두

외할머니댁은 용천 천변 아래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고 또, 밭이 딸려 있는 이상적인 구조였다. 그 밭에는 무척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 한 권을 차지하는 게 앵두나무였다. 하천에서 버들치를 잔뜩 잡고 놀다 들어오면 외할머니가 앵두나무를 훔쳐서 소쿠리 가득 앵두를 따줬던 게 기억난다.

#문화도시 #지구를구하는창작노트지원사업 #지구적이슈 #춘천

12시간



hyunbinseong님 외 25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4. 상추

상추에는 종류가 무척 많다. 야채를 더 많이 먹는 생활을 하려는 요즘 가장 흔하지만 없으면 아쉬운 상추

5. 앵두

외할머니댁은 옹천 천변 아래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마당이 있고 또, 밭이 딸려 있는 이상적인 구조였다. 그 밭에는 무척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앵두나무였다. 하천에서 버들치를 잔뜩 잡고 놀다 들어오면 외할머니가 앵두나무를 훑어서 소쿠리 가득 앵두를 따줬던 게 기억난다.

#문화도시 #지구를구하는창작노트지원사업 #지구적이슈 #춘천

12시간



hyunbinseong님 외 25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baekha.y 작업노트

6. 감

작은 할아버지 댁 앞에는 무척 큰 감나무가 있었다. 고인돌처럼 넓덕한 바위 위에 비스듬히 자리잡은 나무는 키가 무척 컸다. 감나무 위에는 그때도 보기 힘들었던 겨우살이가 자랐다. 감은 짝아 먹어도 좋고 홍시도 좋고 말린 곳감도 좋았다. 여전히 좋아한다. 감잎차도.

7. 밤

추석쯤 작은 할아버지댁에 가면, 떨어져 있는 밤송이들이 많았다. 그 밤송이들을 발로 구르고 작대기로 찌르고 몇 번 가시에 찢러가며 밤을 꺼냈던 기억이 난다. 밤은 요즘 밤처럼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척 달았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었고, 아궁이 밑에 밤을 넣어놓는 재미가 있었다 후일은 쓸 줄 몰라서 매번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7. 밤

추석쯤 작은 할아버지댁에 가면, 떨어져 있는 밤송이들이 많았다. 그 밤송이들을 발로 구르고 작대기로 찌르고 몇 번 가시에 찢러가며 밤을 꺼냈던 기억이 난다. 밤은 요즘 밤처럼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척 달았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었고, 아궁이 밑에 밤을 넣어놓는 재미가 있었다. 호일은 쓸 줄 몰라서 매번 다 태워먹던 기억이 난다.

8. 포도

포도나무는 덩굴을 만들었고 끈을 타고 올라가 포도를 꽤 많이 달았다. 그런 청포도들을 보고 있으면 무척 탐스러웠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개미가 많이 꼬였다. 그 이유로 포도나무가 베어졌던 기억이 난다.

9. 대추

아도진 마다에 이었던 대추나무의 기억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8. 포도

포도나무는 덩굴을 만들었고 끈을 타고 올라가 포도를 꽤 많이 달았다. 그런 청포도들을 보고 있으면 무척 탐스러웠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개미가 많이 꼬였다. 그 이유로 포도나무가 베어졌던 기억이 난다.

9. 대추

안동집 마당에 있었던 대추나무를 기억한다. 대추는 익지 않았을 때 풋사과처럼 맛있었던 것 같다. 작은 할아버지댁에 가면 길가에 있던 대추를 따서 먹고 씨를 뱉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 춘천 시내를 지나다 대추 하나를 따다가 곤경을 겪었다.

10. 방울토마토

전에 다니던 직장에는 옥상텃밭이 있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도시락을 함께 싸오던 동료들과 함께 중앙시장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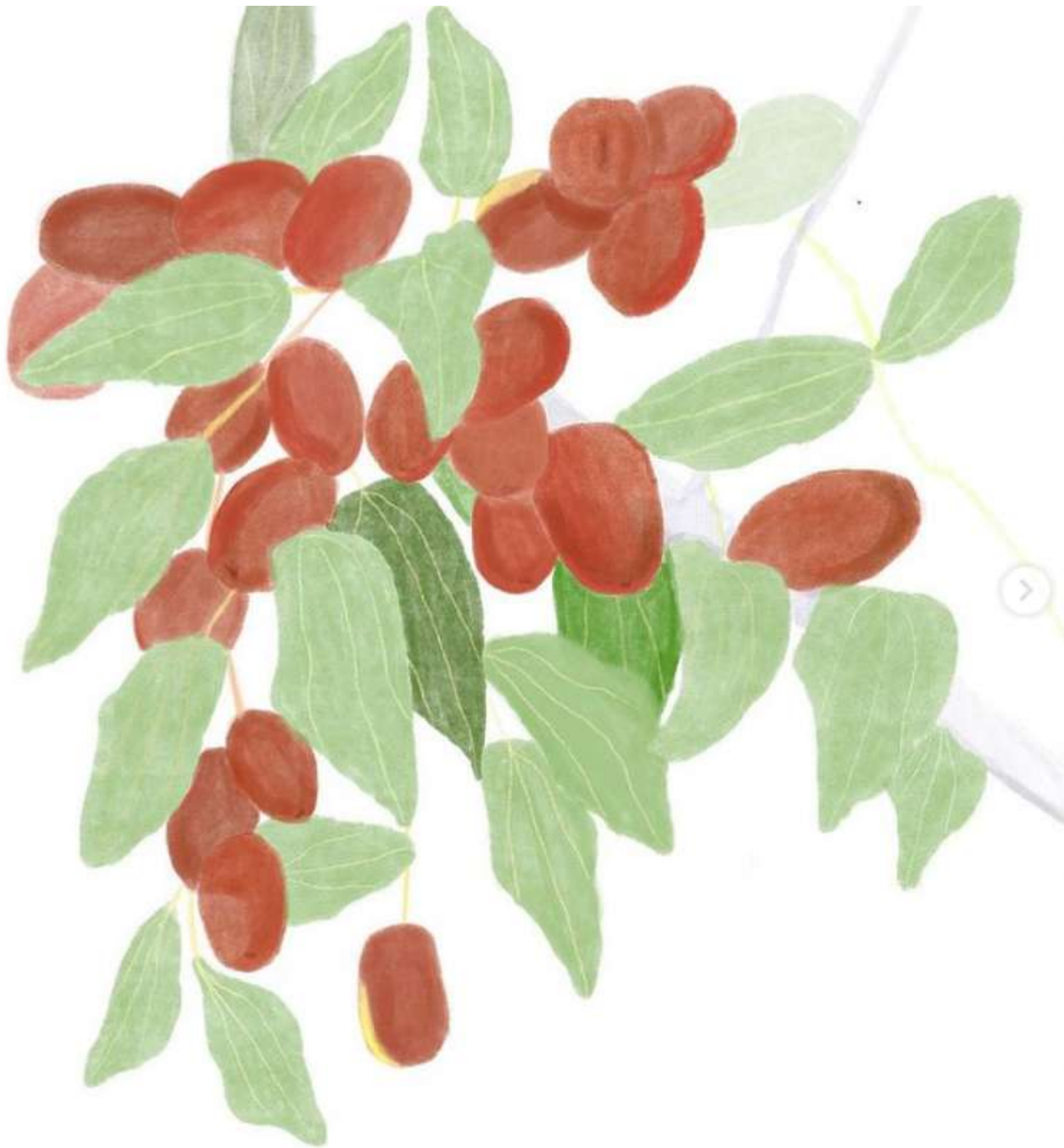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9. 대추

안동집 마당에 있었던 대추나무를 기억한다. 대추는 익지 않았을 때 풋사과처럼 맛있었던 것 같다. 작은 할아버지댁에 가면 길가에 있던 대추를 따서 먹고 씨를 뱉었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 춘천 시내를 지나다 대추 하나를 따다가 곤경을 겪었다.

10. 방울토마토

전에 다니던 직장에는 옥상텃밭이 있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도시락을 함께 싸오던 동료들과 함께 중앙시장에 있는 모종가게에 가서 심어본 것들 중 하나가 방울토마토였다. 그저 물만 줬던 것 같은데 무럭무럭 자라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텃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심을 방울토마토.

11. 가지

히히히히에 대한 기억이 기억이 난다 그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10. 방울토마토
전에 다니던 직장에는 옥상텃밭이 있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도시락을 함께 싸오던 동료들과 함께 중앙시장에 있는 모종가게에 가서 심어본 것들 중 하나가 방울토마토였다. 그저 물만 줬던 것 같은데 무럭무럭 자라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텃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심을 방울토마토.

11. 가지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기억을 하나 떠올려보면,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머니는 가지를 따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가지를 싫어했다. 지금 내게 가지는 정말 맛있는 채소.

#문화도시 #지구를구하는창작노트지원사업 #지구적이슈 #춘천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



baekha.y



나. 애가 마칠 때마다 노시늬를 맘껏 싸 오던 동료들과 함께 중앙시장에 있는 모종가게에 가서 심어본 것들 중 하나가 방울토마토였다. 그저 물만 줬던 것 같은데 무럭무럭 자라는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텃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심을 방울토마토.

11. 가지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기억을 하나 떠올려보면,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할머니는 가지를 따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가지를 싫어했다. 지금 내게 가지는 정말 맛있는 채소.

#문화도시 #지구를구하는창작노트지 원사업 #지구적이슈 #춘천

12시간



hyunbinseong님 외 33명이 좋아합니다

12시간 전



댓글 달기...

게시